

쓰와노 야사카 신사

鶯 舞

백로춤

Sagimai

국가 지정 중요무형민속문화재

TSUWANO
SAGIMAI

백로춤은 2022년 11월에 일본 후류오도리
(風流踊) 춤 중의 하나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자료 제공]

야사카 신사 · 백로춤 보존회

[백로춤에 관한 문의]

일반사단법인 쓰와노초 관광협회 TEL 0856-72-1771



일본유산
쓰와노의
현재와 과거
~백경도를
거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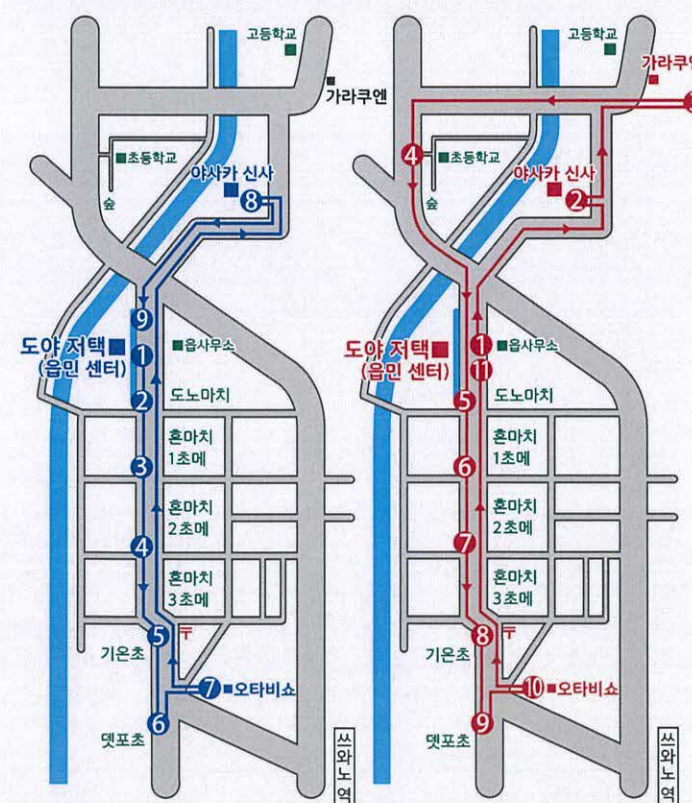
【제17도】

기온축제 백로춤

번주의 측근에서 일했던 구리모토 사토하루가 막부 말기에서
메이지시대에 걸쳐 풍경과 민속을 담아 그린 쓰와노 백경도. 그
모습이 아직까지 생생히 남아 있는 보기 드문 마을인 쓰와노초는
일본유산 제도가 시작된 초년도에 일본 유산으로 인정되었다. 그
중에서도 백로춤을 묘사한 그림은 옷차림도 춤추는 모습도, 지금의
모습 그대로이다. 면면히 이어져 온 역사와 전통의 숨결이 바로
눈앞에 펼쳐진다.

간고 Kango 7월 27일

도고 Togo 7월 20일



이들 모두 도야 저택(음민 센터)에서 15시에 출발할 예정

6월 30일 와쿠구리사이 행사 Wakugurisai



야사가 신사에 관계자들이 모여 와쿠구리사이 행사를 거행하여 유행병으로부터의 안전을 신에게 기원한다.
그 후에 올해의 백로춤 행사에 관해 논의한다.

7월 19일 대제 전야제

7월 20일 도고 Togo



북치기 (동트기 전)
북을 치며 거리를 행진한다. 축제가 시작됨을 알린다.

대제 (오전 10시)
야사가 신사의 대제가 거행된다.



두 번 반의 의식 (오후)
축제를 총괄하는 도야는 사기마이 저택 (오타비쇼)으로 백로춤꾼들을 두 번 마중 나가지만 두 번 다 거절당한다. 도야가 세 번째로 마중 나가는 도중, 즉 두 번 반만에 백로춤꾼들과 만나게 된다.



도야 저택에서의 의식 (오후 2시)
도야가 백로춤꾼들에게 인사를 하고 축제술과 절인 고등어(사시사바) 등이 제공된다.



고신코 (야사가 신사 → 오타비쇼)
도야 저택에서 야사가 신사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제례가마와 함께 오타비쇼를 향한다. 이 날 하루, 백로춤은 마을 내 11곳에서 행해진다.

7월 26일 간고 Kango 전야제

7월 27일 간고



고신코 (오타비쇼 → 야사가 신사)
신은 오타비쇼에서 일주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야사가 신사로 돌아가게 된다. 신이 신사로 돌아갈 때 (간고)는 9곳에서 백로춤이 펼쳐진다.

다음 해의 도야에게 인계
도야가 다음 해의 도야에게 임무를 인계한다. 그 이후 다음 해의 도야를 도야 저택으로 안내하고, 일행은 마지막 춤을 춘다.



춤꾼 반주자 노래꾼

백로춤은 백로춤을 추는 두 사람에게 더해, 악기를 내쫓는 머리털이 붉은 보후리 두 명과 작은북을 허리에 매고 채로 치며 광대역할을 하는 두 명의 간고 등, 총 여섯 명의 춤꾼에 의해 행해진다. 또한 그 뒤로 피리, 작은북, 종, 큰북을 연주하는 사람이 각각 두 명씩 따라가고, 그 뒤로 노래꾼이 뒤를 따른다.



도야 Tôya

본 도야 Hon Tôya
다음 해의 도야 Maikomi Tôya

백로춤 행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도야라고 하며, 오래 전에는 호리쿠로베 가문 내에서만 세습되었다. 현재는 야사가 신사 대표 13 명이 돌아가며 맡고 있다. 또한 다음 해의 도야는 마이코미 도야라 불리며, 그 해의 도야 행사와 병행하여 준비를 한다.

백로춤의 배치



고신코

(신의 행차) Gojinkou
도고 Togo 7월 20일
간고 Kango 7월 27일

백로춤 일행은 도고, 간고 거행 시에는 제례가마의 뒤를 따른다. 고신코는 멈추지 않고 마을을 행진하는데, 백로춤 일행은 기온축제의 제례가마 수행자로서 마을의 몇 곳에서 옛 전통에 따라 신에게 바치는 춤을 춘다.



성하마을에 울려퍼지는 종 소리, 우아한 백로의 춤.

쓰와노의 백로춤은 1542년에 교토에서 야마구치를 거쳐 이

지역에 전래된 것이 그 기원으로 추정된다. 신에게 봉납하는 우아한 백로춤은 쓰와노의 마을 주민들에 의해 소중하게 계승되고 있으며, 매년 야사가 신사 대제의 7월 20일에 행해지는 도고, 27일 행해지는 간고에서 공연된다. 먼 옛날 교토 기온축제의 모습을 오늘날에 전하는 귀중한 춤은 국가 중요 무형 민속 문화재로도 지정되어 있으며, 일본의 대표적인 고전 예능의 하나로 해외에도 알려져 있다.